



# 밀알&세계 MILAL & WORLD

03 2021 | Vol.241

##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는 밀알

이모 집에 맡겨진 열 살 아이가 숨졌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열 살 난 아이가 가까운 친척에게 학대를 받아 죽음을 당하니,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시카고에 장애아이를 가진 한 어머니는 이혼 후 그 아이가 청년이 되도록 아이를 돌보며 혼자 살아오셨다고 한다. 참으로 강한 모정을 가진 어머니가 아닐 수 없다. 그 어머니가 밀알 단원으로 섬기고 있으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셨다. 10여 년 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국에 가면 한 두 끼 식사를 함께 할 뿐 별로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한국에 만날 사람도 많고 중국에 장애인 선교를 하러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을 때 이야기다. 어머니께서

손이 떨려 밥 숟가락을 잡으면 밥알이 많이 떨어졌다. 동생이 보다 못하여 어머니께 밥을 떠 먹여 드렸다. 그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 밥 먹여 줄래?” 당시. 내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렸다. 동생마저 미국에 오고 어머니는 형님 네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다.

어머니 장례예배를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언제 밥 먹여 줄래?” 이 말씀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 내가 그 때 왜 어머님 밥을 떠 먹여 드리지 않았던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 때 내 나이 오십이 넘었을 때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 한번이라도 어머님께 밥을 떠먹여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부모님이 살아 계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살아 계실 때에 한 번 더 찾아 뵙고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를 다 하시기를 바란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부모

님을 자주 뵙지도 못하지만 매일 전화도 드리고 효를 더하시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십계명 중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셨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제1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잘 지킬 수 없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할 때 우리는 또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여 자주 왕래하며 죽고 못 살 때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기 형제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흉볼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저런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부러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를 맞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나타냄으로 복음을 전하는 밀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사람의 글을 올린다. 🌊

글 | 정택정 목사 (워싱턴밀알 단장)



#### 표지사진:

2021년에도 어김없이 새 봄이 찾아와 온누리에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힘겨운 우리 마음에도 위로와 기쁨, 소망의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한다.

#### 차례

- 02. 칼럼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는 밀알
- 04. 아름다운 섬김  
온 가족이 봉사하는 즐거움
- 06. 밀알 오디오 바이블  
밀알 친구들이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고 성숙해지길
- 08. 삶의 지혜  
가는 길 다시 묻고, 묻고, 물어
- 10. 나눔의 기쁨  
아름다운 선물! 장학금 전달
- 12. 소중한 추억  
안셈이 가족을 떠나보내며
- 14. 함께하는 즐거움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 16. 신앙 단상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교체하며 얻는 교훈

##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241호 | 2021년 3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이재철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682-561-9826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아름다운 섬김

# 온 가족이 봉사하는 즐거움

시카고밀알의 남성우 목사님께서 내게, 가족 (아빠: 권종철, 엄마: 이주연, 딸: 권지아, 권리나) 구성원 모두가 꾸준히 발런티어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며 밀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를 써 달라고 갑작스런 제안을 하셨다.

게다가 우리는 아마도, 이곳의 봉사자들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아니며 처음 봉사자 교육에 참여했을 때 둘째 딸은 그 당시 아홉 살로 가장 나이가 어린 발런티어였으니 여러모로 튀는 가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정착한지 1년이 좀 넘은 어리둥절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육아를 하며 바쁘게 종종거리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있었다. 아이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오전에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겠다고... 여태껏 우리가 운이 좋게 무탈하게 살아 올 수 있었던 건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이니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분들 덕분에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택시를 운전해주는 분들 덕분에 돈을 내고 편리하게 택시를 타고, 돼지를 잡아 죽이는 일을 대신해 주는 덕분에 누군가는 돼지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삼겹살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는 이들 덕분에 귀찮을 때는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다.

그들의 고귀한 땀과 노동을 쉽게 사고 소비하며 누리면서도 감사한 마음보다는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기 싫은 가려진 많은 일들을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대신 누군가 해줘서 우리는 돈만 내면 편안히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니 빛진 인생, 빛을 갚으며 살아야겠다고...

한국에서 남편의 삶은 보통의 한국 남자들처럼 가족과 함께 보낼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았다. 미국에 와서 저녁 있는 삶을 선사받은 우리 가정은 가족 모두가 동참해서 빛을 갚을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편은 차일피일 자꾸 미루기만 했다.

그러던 중 우리의 미국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남편의 지인께서 돌아가셨다. 일주일 전에도 우리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셨던 그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남편은 밤새 뒤척였고, 다음 날 아침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함께 나누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늘 생각하는 것 보다 실천은 굼뜨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날 만큼은 미루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밀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 설교는 우리 같은 초심자들에게 쉽게 다가와서 성경말씀을 배우기에 좋았고 점점 편안한 이웃이 된 밀알 식구들 덕분에 하나님의 존재가 발끝에 사알짝 스미는 것도 같다. 게다가 밀알에 갈 때마다 영혼이 순수한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순전한 웃음으로 반겨주니 갱년기 핑계로 집 안에서 욱박지르고 소리치는 내 영혼은 주기적으로 탈~탈 정화된다.

그러니 코로나여, 얼른 종식되어서 한계 수위까지 얼룩덜룩해진 내 영혼의 치유제를 빨리 만나게 해 주길...

글 | 이주연  
(시카고밀알 봉사자)





# NY MILAL AUDIO BIBLE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17





## 밀알 친구들이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고 성숙해지길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역이 멈춘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밀알의 식구들은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는 있지만, 역시나 집에 있어야 하는 우리 장애인들과 식구들은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친구들은 오로지 zoom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만나면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한가지 염려 되는 건, 밀알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우리 밀알의 친구들은 이제 성경구절을 하나 둘 씹 까먹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무료한 시간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게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뉴욕 밀알만의 자체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기로 했다. 성경 66권을 다 제작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배워온 주제 성경구절과 십계명 등을 우리가 천천히 직접 읽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이미 시중에 많은 오디오 성경이 있는데 왜 굳이 작업을 해야 하나고들 물었지만,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

글씨를 읽는 것이 불편한 친구들이 밀알에는 많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 수많은 성경 버전들 중 쉬운 버전들과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버전으로 모았고, 무엇보다 수년간 함께 해온 봉사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해서 우리 친구들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우리 친구들은 소리에 예민하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한마디만 들어도 그들은 알 수 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예배하고, 운동하고 그림 그리던 우리 청년 봉사자들과 밀알의 스태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한번이라도 더 성경구절을 그들은 들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 성우가 아니고 오디오 성경을 제작해본 적도 없어서 시작하면서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늘 우리 밀알은 한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맘으로 사역하는 곳이기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름에는 밀알 커넥트라는 제목으로 보이는 라디오처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친구들과 두 달 동안 만났듯이, 이제는 정말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목소리들로 녹음된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한 구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성경구절처럼, 비록 못 모이고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 뉴욕밀알선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선교단으로 살아 가기를 소망하면서 밀알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밀알 커넥트!!” 🍌

글 | 뉴욕밀알 홍보부



## 가는 길 다시 묻고, 묻고, 물어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의식 발전을 세 단계로 이야기한다. 첫째, 낙타의 단계: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입력된 대로 산다. 물음이 없다. 저항도 없다. 평생 하라는 대로만 하는 영성지수 100-150의 단계이다. 둘째, 사자의 단계: 반항하는 단계이다. 혁명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으려 노력하고 투쟁을 시작한다. 영성지수 150으로 중용의 단계이다. 셋째, 어린이의 단계이다. 용납한다. 솔직하다. 개방적인 사람이 된다. 영성지수 350으로 자발성 이상의 단계이다.

당나라의 청유유신은 낙타의 단계를 “산은 산이다”라고 풀었다. 사자의 단계를 “산은 산이 아니다.”(山非山)라고 했다. “이럴 수는 없어” 문제제기를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어린이의 단계를 “산은 역시 산이다.”로 풀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가던 길을 묻는 사람이 있다. “이 길 맞아? 정말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Desire)” 반면, 전혀 물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인류의 85%는 물음 없이 간다고 한다. 겨우 3%의 사람만이 묻는다. 지금 사는 것에 대해 “내가 누구야? 내가 어디 있어?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인가?” 하며 물어야 한다. 물음이 있는 3%의 사람이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

‘스타니슬라브스키 레이’라는 유태인이 나치에 의해 체포된다. 수용소에 끌려가 가스로 학살을 당하는 현장에까지 가게 된다. 어느 날, 가스실에 끌려가 자식이 옷을 벗어 놓

고 죽는다. 친구들이 옷을 벗어 놓고 죽는다. 사람들은 원망 섞인 질문을 한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그 와중에 레이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 “살아서 나갈 수는 없을까?” 계속 사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러다가 수용소 창밖에 차를 본다. 그 차는 가스실에서 죽은 시체를 실어 가는 차였다. “내가 산 채로 저 차에 누워 있으면 살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옷을 벗고 그 차에 눕는다. 냄새 나는 시체와 함께... 시체들이 버려지는 순간 그는 벗은 채로 25마일을 달려나가 살아남게 되었다.

똑같이 물었으나 물음이 달랐다. 삶은 단지 생각이 다를 뿐이다. 언제 생각이 달라지는가? 물었을 때이다. 물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성경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된다. 그러다가 2장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분의 명칭이 바뀐다.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1장에는 ‘엘로힘’으로 나오다가 2장에 가면 ‘여호와’로 바뀐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3장에 가서 첫 번째로 물으신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물음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은 낙타의식에서 사자 의식을 가질 때 변화하기 시작한다. 영성지수가 350이 넘어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람은 참으로 많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산다. 그러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음에서 온다. 아이들은 자꾸 묻는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안 묻는다. 물음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안 하니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방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애, 덩다 문 열 어라.” 잠시 후 엄마가 소리친다. “애, 모기 들어온다. 문 닫아라” 아버지, 엄마의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된다. 하라는 대로 하는 아들이 있다. (낙타의 단계) 화를 내며 나가 버리는 아들도 있다. (사자의 단계) 그런데 어떤 아들은 묻는다. “아버지, 엄마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묻다가 생각한 끝에 나온 것이 방충망이다.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금광을 캐다가 앉아서 불평을 한다. “자꾸 옷이 떨어져서(해져서) 못 살겠다.” 그 물음에 한사람이 생각한다. 그러다가 “텐트 천으로 옷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남녀노소가 즐겨 입는 청바지이다.

진취적인 사람과 진부한 사람의 질문이 다르다. 사람의 두뇌는 무게가 1.4Kg 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 뇌를 컴퓨터로 만들면 뉴욕 쌍둥이빌딩 (사라졌지만) - 무역 센터 두 개 정도의 용량이라고 한다.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생은 간다.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묻는다. 왜 안 물을까? 물으면 화가 난단다. 물으면 무서워진단다. 물음 자체를 무서워하기에 묻지 못한다고 한다. 사람은 자꾸 물으면 사면초가가 된다. 화가 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아포리아”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때부터 사람은 철학이 시작된다”고 했다. 물음 앞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25번을 물으면 갈라지기 시작한다. 300번을 물으면 열리게 되어있다. 물음을 적어보라! 내가 가진 문제를 적어보라! 묻고 물으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문제가 닥치면 물

어야 한다. 답에 답을 달으며 자꾸 답을 찾으려니 답답해질 수밖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시각을 상실한 사울은 물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포드는 물었다. “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이트 형제는 물었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그 물음이 계속되며 인류 역사에는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다. 2021년 중 두 달이 지나간다. 가는 길 다시 묻고 물어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자! 🍀

글 | 이재철 목사  
미주밀알 총단장  
필라델피아밀알 단장





## ■ 나눔의 기쁨

# 아름다운 선물! 장학금 전달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국을 누군들 예측이나 했으랴? 2020년 한 해는 모두가 예외없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미래를 견고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많다. 지난 12월에도 모르는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다. 그 분은 “밀알에 무엇이 필요하나요?”라고 점잖은 목소리로 물어 오셨다. 장애인 라이드 미니밴 차량 2대가 각각 30만, 28만 마일이 넘어 언제,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라 장애인들을 위한 식품공급을 운행하

고 있는 것도 매우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실정이었다. 언제 어디서 차가 멈출지 모를 불안속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밴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있지만...”이라며 선뜻 말을 잊지 못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예년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계획을 구상하신다며 장애인으로 학업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으시다고 하신다.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차량 문제가 시급한 건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고통가운데 하루 하루를





염려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밀알가족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밀알가족들을 떠올리며 “네! 장로님! 녀 좋은 계획을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하실까요?” 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끝냈다

이분은 DYC Foundation Inc의 대표이자 교회 장로님으로 무려 \$10,000.00을 도네이션 해주셨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성함도 굳이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사업체 이름만 기재하는 것이다.

장로님이 기부하신 후원금으로 대학생 1명(\$2,000)과 고등

학생 8명(각 \$1,000)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장에서 전달식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정택정 목사님과 밀알 스태프들이 안전수칙을 지킨 채 각 가정을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로님의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뻐 감사하는 밀알선교단에도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밀알을 향한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글 | 정일본 사모 (워싱턴밀알)





## ■ 소중한 추억

# 안셉이 가족을 떠나보내며



안셉이는 선천성 청각장애인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밀알예배에 처음 봉사하신 성도님들은 안셉이와 인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얼굴을 바라보고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셉이의 언어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찡그린 얼굴로 말하면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나오는 표정을 가지고 안셉이와 마주보고 인

사하면 너무나 환한 미소로 답례하는 안셉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으로 마주보는 안셉이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소리를 지운 고요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안셉이가 듣게 될 첫번째 소리는 아마도 우리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안셉이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청년입니다.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

지의 신앙을 배워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안셉이의 기도에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밀알의 예배 때도 안셉이는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말을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구요? 우리는 안셉이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밀알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 모양을 눈을 뜨고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안셉이는 씩씩하게 나와서 멋진 기도의 순간을 만들어 내는 깊은 신앙의 삶을 가진 친구이지요.







함께 매주 화요일예배를 참석하고, 밀알 소풍에 온 가족들이 함께 와서 교제를 하였고, 집을 떠나 밀알 사랑의캠프에 친구들과 함께 매년 참석하던 안셉이는 지난 10여년동안 북가주밀알의 얼굴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안셉이의 가족들은 한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밀알 화요일예배 반주자로 섬겨주신 동생 안나자매와 더불어 네 식구가 밀알 가족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모이는 화요일모임에서는 당분간 얼굴을 계속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마음을 서로 기대어 사는 이웃 사촌들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이 되어서, 밀알가족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제 서로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서로 기대어 살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안셉이의 가정이 함께한 북가주밀알의 지난 10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추억으로 서로의 기억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 함께하는 즐거움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코비드로 인하여 밀알친구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밀알 친구들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집단 활동을 통해 코비드 감염되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을 통한 만남도 마이애미밀알 친구들에게는 쉽지 않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마이애미밀알 사랑의교실은 한 세션에 선생님 한 분과 밀알친구 한 명이 만나서 일대일로 활동하는 형태로 바뀌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없는 친구 이름을 불러보며 찾기도 하고 혼자 하는 활동에 어색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은 교실에 들어오는 친구들 얼굴에서 가득한 기쁨과 행복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대일 활동을 하면서 얻은 여러 유익 가운데 하나는 친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과 더 연습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면서 개인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하는 미세작동이 부족한 친구에게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만들기를 준비했고, 운동이 필요한 친구와 함께 매주 짧은 산책을 했고, 그림에 소질이 있는 친구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는 친구와 작은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위를 사용해서 그림을 오리고, 뜨개질 바늘을 이용해서 단추를 달아보고, 'Love Jesus'를 자수로 새겨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작품들은 하나하나 친구들의 노력과 자부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애미밀알 친구들이 만들 작품들을 모아 올 해가 가기전에 멋진 전시회를 열어보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올해가 끝날 즈음에 코로나와의 영원한 바 이바이를 기념하며 마이애미밀알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 박민선 (마이애미밀알 연락소장)

It has not been easy for us volunteers and our friends at Milal to spend time together during the pandemic. Online meetings have also not been very plausible since many of our friends in Milal have trouble in areas that range far beyond just communication.

Ever since last July, our classroom has been utilized for 1 on 1 meeting exclusively. Without other friends to smile by their side, it was challenging for our friends to adjust to at first. Despite the initial awkwardness, they have adapted very well with time. They are now coming into classrooms radiating joy and excitement.

While it has been challenging in recent times, we have also seen many positives with our current system. The 1 on 1 meeting has allowed us, volunteers, to discover which areas our friends excel at and which areas our friends need help. Because of this, we have been able to create more personalized programs that cater more to each of our friends: For those who had difficulty with hand coordination, we prepared exercises that encouraged the usage of their hands, and for those who had trouble with stamina, we spent time taking a walk with each other in the backyard.

Many of our friends at Milal surprised all of us by showing just how artistically talented they each were. We made many artworks that each hold their passion and love for Christ, and we cannot help but feel like God wants us to showcase their work to others. With hopes of overcoming the pandemic this year, we plan to hold an exhibition to display their beautiful artworks. We are grateful for all the support you have given us, and with the help of your prayers, we are sure that we can make our goal a reality.

번역 | Wonjun Yeo (A volunteer at Milal Mission in Miami)



## ■ 신앙 단상

#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교체하며 얻는 교훈



얼마 전 집에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교체하였다. 지난 2018년에 배터리를 바꿨는데 수명이 2년도 못 갔다. 휠체어가 장거리용이 아닌데다가 내가 척추신경병원과 한의원 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보니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는 것 같다.

배터리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다행히 내 휠체어를 전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렴한 가격에 교체할 수 있었다. 'Mike'라는 60대 백인 아저씨로 한쪽 손이 없는 지체장애인이다. 젊은 시절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후 1990년부터 헌팅턴비치에서 휠체어 수리점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한다. 나는 2017년부터 그분




께 휠체어 수리를 맡겼는데 내가 연락을 하면 우리 집까지 방문해 너무나 정성껏 고쳐주신다. 한쪽 손만으로 어떻게 그리 정교하게 공구를 다뤄 깔끔하게 고쳐내는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실력은 참으로 능수능란하지만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가며, 심지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휠체어를 고치는데 얼굴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티셔츠가 평 젖는다. 남의 휠체어 하나 고치기 위해 이토록 애쓰는 모습에 나 역시 감정이입이 되고 동질감이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처럼 최선을 다해 휠체어를 고쳐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수리비까지 저렴하게 받는다. 휠체어를 수리하다 보면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우는 업자들도 많은데, Mike는 항상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부품도 싸고 좋은 것을 추천해주며 서비스 차지도 최저로 받곤 한다. 이번에 배터리를 교체할 때도 보통 배터리 값만 200불이 넘는데, 자기한테 항상 수리를 부탁해 고맙다고 하면서 배터리 가격, 수리비까지 모두 180불에 해주었다. 내가 팁을 좀 더 주려고 하니 서비스 차지만으로 충분하다며 끝내 받지 않았다. 이토록 성실하고 양심적인 모습에 다른 고객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Yelp에 보면 그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고 내 휠체어를 고치는 동안에도 수리 요청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비록 몸에 장애가 있어도 항상 성실히 최선을 다 하는 삶을 살며 자신의 고통을 넘어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부터도 인정과 존중을 받는다는 사실을

Mike를 통해 다시금 깨닫는다.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교체하며 얻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다. 휠체어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포터블 기기를 충전할 때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이 자꾸 단축되어 오래 쓰지 못한다. 우리는 배터리가 금방 닳을까 봐 좀 더 오래 쓰기 위해 자주 충전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배터리에겐 좋지 않다. 배터리 용량을 완전히 소모시켜 거의 0%일 때 충전을 시작해야 충전 속도도 빠르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자존심이나 자기 의, 세상적 욕심 같은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고 싶어 부족한 것들을 계속 채우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곤 오직 더러운 죄밖에 없고 어떤 의로움이나 거룩함도 갖고 있지 않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입어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수 십 배, 수 백 배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이준수 목사 (미주 밀알&세계 편집담당)

## 남가주

### LA 화요 온라인 Zoom 예배 (2월)

- 2일은 조영건 목사님이 “내가 주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대표기도는 전성도 전도사님이, 특송은 김영직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9일은 이종희 단장님이 “말씀을 행하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마가렛리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16일은 신경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대표기도는 김용주 전도사님이, 특송은 정주수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OC 목요 온라인 Zoom 예배 (2월)

- 4일은 이은철 목사님이 “약함을 자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대표기도는 문성철 선교사님이, 특송은 제시카송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11일은 신경섭 목사님이 “새해에 팔복 많이 받으세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대표기도는 김홍용 장로님이, 특송은 유인식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18일은 이준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김동훈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미주밀알선교단 단장회의

지난 2월 15일 미주에 있는 18지역의 밀알 사역자들이 Zoom에 접속하여 단장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비대면 단장회의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며,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할 올해 사역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 진행

Covid-19사태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단체, 개인으로부터 후원 받은 도시락, 쌀, 라면, 과일,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마스크 등 식료/생필품들을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이 더욱 큰 소외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남가주밀알선교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도 설날을 맞아 6일(토)과 13일(토)에 각각 LA와 OC 밀알가족들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에 후원을 원하시

는 분들은 사무실로 직접 물품을 전달해주시거나 온라인 송금 서비스 앱인 ‘Venmo’를 이용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밀알 Venmo ID: @Milal-Mission-SCA)

### 밀알가족 동정

- LA 밀알 가족인 엔지윤 집사님의 시어머님이 지난 1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유가족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 OC 밀알 가족인 양희원 교수&김윤덕 집사 내외분이 Buena Park 지역에 가정, 교육 상담기관인 ‘Bridgeway Center’를 개원하셨습니다. 양 교수님 내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공동체를 위한 여러 유익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북가주

### 온라인 화요일예배

- 1월26일은 “하나님 아버지(마6:9)”란 제목으로 김정기 단장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승현 목사님의 어머니 강금옥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창완 간사님의 부친 한장호 율리아노님께서 소천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월2일은 “새로운 예배(전도서5:1)”란 제목으로 김정기 단장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2월9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빌3:8-9)”란 제목으로 김정기 단장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주연 집사님이 수어찬양으로 특송을 해주었습니다.

### 사랑의교실

- 2021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주는 청년밀알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청년밀알 안셈 가족이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을 가슴에 품고 떠난 안셈 가족이 한국생활에서도 더욱 풍성한 삶이 함께 할 줄 믿어요. 여기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서운해 하며, 보고 싶어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길 바래요.
- 청년밀알 워크숍을 했습니다.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청년밀알이 어떤 모임인지,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Art & Craft 시간에는 천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 할머니와 한 간사님 할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셔서 천사를 만나셨을 것”이라는 헬라라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천사를 만들었어요.

• 새롭게 3개의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팀 이름과 팀 멤버 그리고 팀 디렉터를 정했습니다. 또한 팀별로 ‘Apostle’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예배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보았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팀별로 서로 이야기하며, 함께 모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올해 1월부터 매일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40분부터 9시까지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얼굴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 성경읽기를 통하여 한글과 영어 읽기 실력이 늘어서 좋고,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여러 사정으로 청년밀알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환경이 좋아져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 북가주밀알 3월의 기도제목

- 모든 밀알가족들이 코비드19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안셉 형제(이민성 목사님과 사모님, 이안나 자매)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정착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 북가주밀알 온라인 화요일예배에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도의 교제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밀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보훈이의 항암치료(소아암)가 완전히 깨끗하게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집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에 밀알 친구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가족들 모두 함께 생활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밀알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밀알의 장애사역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는 모든 밀알가족분들과 지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 온라인 캠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획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지역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코비드19로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증상이 심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 시애틀

### 시애틀 사랑의교실

2021년 3월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백신의 개발로 어두운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사를 맞고 집단면역이 되기 전까지는 밀알 사랑의교실은 당분간 임시 휴교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시애틀의 겨울,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 계절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친구들과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길 기도해 주세요. 4차 밀알 모바일 패키지를 준비해 2월 27일에 Drive Thru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와 패키지를 통해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임동은 디렉터 253-886-2441)

### 타코마, 웨더렐웨이 사랑의교실

타코마, 웨더렐웨이 사랑의교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의교실은 임시 휴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밀알 모바일 패키지를 웨더렐웨이는 2월 27일에 보냈고 Tacoma는 3월 중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고통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송인숙 간사 253-232-0998, 이종열 전도사 253-228-7734)

### 감사합니다

- 밀알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웨더렐웨이 사랑의교실에 장소와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웨더렐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형제교회, 온누리교회, 웨더렐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송지호 헤어에서 시애틀 사랑의교실에 매달 1회 빵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알립니다

- 2021년 봄 학기 밀알의 모든 일정은 Covid19에 대한 정부의 시행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 시애틀 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11:30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주일 11시)에서는 사랑

부(장애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 온누리교회 장애인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 오레곤 벨렐장로교회에(사랑부) 장애인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 SMA(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 3:00 밀알에서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종이접기, 검도,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도네이션 해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화요일 S.M.A(성인장애인)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15명)

### 기도해 주세요

-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밀알의 사역이 정상화되도록
- 2021년 상반기 밀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 S.M.A 친구들과 가정을 위하여
- 밀알 목자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헌신하도록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밀알의 모든 스태프들과 사역들을 통해 장애인 전도/봉사/계몽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 밀알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 밀알 장애인의 형제자매 프로그램인 Sibling Program 프로그램을 위하여
-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eattle Milal Academy를 위하여
- 시애틀, 웨더렐웨이, 타코마의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를 위하여

## 밴쿠버

### 밀알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 목요모임

팬데믹 상황이 확산세가 이어져서 강화된 방역 지침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되었습니다. 계획했던 <Meet & Greet> 대면활동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한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고려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밀알사역의 모토인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계속하여 잘 감당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eet & Greet>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토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모여 <밀알함께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눕니다. 예배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은 정말 특별합니다. 친구들이 집에서 참여하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학부모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하는 봉사자 여러분이 있어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모임 '포토클래스'는 잠시 휴강 중에 있습니다.

### Woori Log: 밴쿠버밀알 youtube

밴쿠버밀알이 'Woori Log'(우리로그)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낯익은 봉사자들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하여 친구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은 편리한 시간에 손쉬운 방법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등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그' 사역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 봉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우리 친구들을 위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04-339-4417).

### 2021-1차 자원봉사자 교육 기도 요청

밀알은 항상 좋은 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3월과 4월 중에 2021년 1차 정기자원봉사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협력간사 미팅

2월 11일, 협력간사 화상회의와 기도회를 갖고,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사역논의를 하였습니다. 귀한 간사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팬데믹 상황에서 몇몇 분들의 요청이 있어 e-transfer 후원을 셋업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방법을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finance.vanmilal@gmail.com

## 'The Prayer' & 'The Bridge'

- 〈The Prayer〉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할 분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 〈The Bridge〉 월 \$10 정기후원하실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 팬데믹으로 만나고 모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 더 이해할 수 있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 팬데믹으로 수고하는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소서. 그리고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밀알가족이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소서.
-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소서.
- 기도로 섬기는 밀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밀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밀알,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밀알에서 드러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소서. 사랑의교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 단장님과 사모님, 가정이 성령충만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 사랑의교실 리더십이 서로 협력하여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스태프들이 세워져 조직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소서.
- 봉사자, 후원자,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밴쿠버밀알을 후원하는 분들을 축복하소서. 후원자 개발과 펀드레이징 사역을 인도하여 주소서.
- 좋은 봉사자들이 많이 지원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더 나은 네트워킹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지역교회들과의 기도지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게 하시고, 봉사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밀알멘들의 성장과 밀알사역의 강력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 '밀알선교 중보기도후원' 캠페인이 자리를 잡아, 밴쿠버밀알 사역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월 \$10 정기후원자'를 모시는 〈The Bridge〉 캠페인을 통하여, 재정적 필요를 채워감과 동시에 많은 분들과 함께 장애인과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며, 함께함으로 밀알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펼쳐갈 수 있게 도우소서.
- 〈협력간사모임〉과 〈대외협력팀〉의 활동을 인도

하시고 축복하셔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참하여 밴쿠버밀알이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열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 〈Meet & Greet〉와 〈온라인예배〉가 귀한 만남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유튜브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 2021년-1차 자원봉사자교육에 참여할 좋은 봉사지원자들을 모아주세요.
- 새로 셋업한 e-transfer 후원방식이 사역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좋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 텍사스

###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이 모임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이와 특성에 따라 그룹별로 나뉘어져서 성경적 교육과 놀이(성경공부, 미술, 음악, 태권도, 체조, 산책, Craft와 다양한 수업)를 실시합니다. 장애인이 구원받고 변화되며, 동시에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훈련받는 섬김의 장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가정이나 자원봉사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심방을 통한 소규모 사랑의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267-467-5971)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돕는 성경적 상담'

COVID19으로 인해 비대면 상담 사역을 진행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 뿐 아니라 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 가족이나 Caregiver들에게 성경적으로 장애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상담입니다. 주중 낮 시간에 진행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수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정신과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나 그의 가족, 노인성 장애를 가진 분이나 그 분들을 돕기 원하는 이들과 교회들에게 열려 있는 상담 사역입니다. 성경적 상담을 전공한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문의 267-467-5971)

### 밀알 오케스트라 Virtual Concert

전문 연주자와 장애인 연주가 함께 하모니를 만드는 밀알 오케스트라 밀알의 밤 행사를 올리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음악 안에서 소망과 꿈을 생각하게 하는 음악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8월 초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날짜는 텍사스 밀알선교단 홈페이지(www.txmial.org)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함께 만들

어가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의 txmial.org)

###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텍사스 밀알선교단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일반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첫번째 프로젝트로 전문 음악치료 자원봉사자 훈련이 시작하여 여러분이 참여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후에 밀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의무이면서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10년 이상 음악치료 임상을 하였고, 여러 해 동안 전문음악치료과정을 가르치고 진행한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훈련 참여 문의(267-467-5971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송라이팅 프로젝트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활동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암송 노래와 치료사가 직접 인도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치료적 음악활동을 유튜브로 제공합니다. 2월 중에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텍사스밀알선교단으로 문의해주세요.

### 기도합니다

- 텍사스밀알과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사랑으로 장애인으로 함께 섬길 자원봉사자들을 보내 주소서. 또한 장애인 섬기다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 장애인 선교의 마음이 텍사스 각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그들과의 긴밀하고 즐거운 협력이 이뤄지게 하소서
- 새로 시작하는 채경수 단장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가정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며,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소서
- 온라인 송라이팅 프로젝트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좋은 구조의 노래를 만들게 지혜를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소서
- 2021년의 사역을 구상하였습니다. 소망을 품은 2021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게 하소서



## 재정보고 2021년 1월

### 남가주

수입부: \$18,598.69

**개인: \$5,270.00** \$20 Hyoung Il Seo, Kyung Won Kang / \$50 Hye Ran Le, 김종경, 백현, Ro Kim / \$60 Young Hee Lee, 이진숙 / \$100 박선희, Samuel & Monica Lee, 강은혜, Chun C. Gamble, Moo Kyong Lim, Duck Joo Yoon, 강순익, Kyung Sook Kim, 이병호, Jamin Youk / \$110 Mibae Kang / \$200 Jinkyung Choi, Helena Chung / \$300 Angie Yoon, 무명, Jong Hyun & Chansook Koh / \$500 Kwang Sung Lim, 강인주, 김홍용 / \$1,000 양경옥

**교회 및 사업체: \$8,658.69** \$58.69 US Department of Treasury / \$100 Grace Community Pharmacy, Korean Community Christian Church of Victor Valley, Cornerstone Church, Happy Runner / \$200 Bankcard Services, Bethel Korean Church,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브림장로교회, 생수의강선교교회,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300 Irury LLC, 남가주사랑의교회, KAY Uniform, Shalom Church of S. CA, The Church of Joy / \$500 America Wheat Mission, 예승교회, General Metal Recycling Co, NGL Transportation, Good Steward Church, 새생명한인교회 / \$600 나성순복음교회 / \$900 남가주동신교회 / \$1,000 Sunnyside Presbyterian Church

**특별: \$4,670.00** <Sharing Love \$1,300: \$100 Gyeongseob Shin / \$1,200 The Way Church> <Fundraising \$40> <Sign Language \$850> <Rent \$2,480>

지출부: \$29,081.65

**사례비: \$13,788.81** Salaries & Wages \$8,700 / Payroll tax \$961.35 / employee benefit \$300 / Housing support \$1,500 / Severance Pay \$1,846.16 / Workers compensation \$481

**대외선교비: \$1,000.00** Palm Mission Church (Dec 2020, Jan 2021)

**사랑나누기: \$1,689.79** Apartment rent support, Plastic Bags, toilet papers, transportation

**사무관리비: \$7,019.85** Rent \$3,102.19 / Equipment rent \$444.17 / Telephone & internet \$393.50 / Electric \$284.19 / Office Supplies \$444.32 / Repair & Maintenance \$328.50 / Alliance for America Milal \$1,108.54 / Liability Insurance \$752.50 / Office Meal \$34.30 / Postage & Shipping \$42 / Interest Expenses \$28.91 / Other Office Expenses \$56.73

**미디어선교비: \$2,703.08** Magazine Publication \$2,156 / Magazine Shipping & Handling \$547.08

**사랑의교실: \$406.28**

**Scholarship Disbursement: \$39.34** Award Package

**Fundraising Expenses: \$1,089.95** Hazelnut Power bean \$861.26 / toilet paper rolls \$90 / supplies & bags \$138.69

**자동차: \$1,344.85** Gas \$106.85 / Maintenance \$330 / Insurance \$908

전월이월금: \$55,845.89 | 차월이월금: \$45,687.64

남가주밀알 장학 재정보고

**수입부: \$5,908.00** <Churches & Businesses \$5,908.00: \$3,600 Complete Copy System / \$200 Irvine Onuri Church / \$1,808 Hanmaeum Senior Service Inc /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지출부: \$4,077.20** <Scholarship \$3,627.20: Reserved Ministers Support \$2,000 / Designated \$1,627.20> <Periodic Support \$450: Employee Support>

전월이월금: \$ 71,038.03 | 차월이월금: \$72,868.83

### 북가주

수입부: \$13,017.22

**개인: \$4,020.00** \$20 최명환&종순 / \$30 나정화 / \$40 이주익&오윤경, 한형익&형서 / \$50 이우성, 조태묵&정숙, 최영훈&재현 / \$100 Young & Ye Kim, Jonathan & Joung Ok Han, 김찬욱, 이승덕&가은영, 최요셉, 최희자, 무명 / \$200 김정기, 안소영, 장지나 / \$240 고순옥 / \$300 오영수 / \$400 차현상&김은미 / \$500 김성준 / \$1000 이지선 & 이학천

**교회: \$6,035.00** \$50 세화교회 / \$75 산호세새소망교회 / \$100 산호세밸리교회,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한사랑교회 / \$200 몬트레이중앙장로교회, 심포니교회, 이스트베이한빛교회, 좋은땅침례교회 / \$300 임마누엘장로교회, 크로스포인트교회 / \$500 해피밸리교회 / \$520 임마누엘장로교회(엄귀섭목장) / \$600 SF사랑의교회 / \$650 프레즈노침빛교회 / \$740 시온영락교회 / \$1,200 노엘장로교회

**단체: \$802.22** \$50 AMHB, Inc. / \$52.22 IBM Employee services center / \$100 Luxe Apparel & Gift / Subway Sandwiches, 오영의공인세무사 / \$400 이학천CPA

**지정후원금 \$2,160.00** <사랑의교실 \$100: 김정기> <청년밀알 \$200: \$100 마이클가정, 엠마오선교원> <화요예배 \$400: \$200 김정기, 전송화> <장애인가정지정 \$460: \$60한익상&미성 / \$400 무명> <브라질선교사 가정지정 \$1,000: 김정기>

지출부: \$16,314.28

**선교비: \$11,211.45** 사례비(4인) \$3,717.86 / 단장사택 \$2,395 / 선교활동비 \$300 / 미주총단지원 \$1,004.84 / 은퇴연금 \$300 / 온라인화요예배장비 \$493.75 / 장애인가정 \$1,000 / 선교사가정 \$2,000

**사무관리비: \$2,277.02** 전화&인터넷 \$266.41 / IRS Tax \$359.17 / 사무실임대료 \$1,200 / 공기청정기 \$301.44 / 회계보고4Q2020 \$150

**차량관련비: \$353.04** 유류비 \$273.55 / 세차, 오일교환 \$79.49

**미디어선교비: \$1,056.97** 밀알&세계 발송비 \$206.20 / 밀알&세계 인쇄비 \$850.77

**행사부: \$1,418.50** 책임보험료

**전월이월금: \$49,147.70 | 차월이월금: \$45,850.64**

## 시애틀

**수입부: \$8,165.00**

**개인: \$4,215.00** \$20 윤유순, 정은옥 / \$25 장원 / \$30 황영자 / \$50 정남수, 오수미, 박진경 / \$60 류준명 / \$100 조윤숙, 장옥현, Hae C Billington, 경자훈, 송인숙, 김준, 윤태준&윤정주 / \$170 장한 / \$200 송인상, 이종열 / \$240 번크리스틴 / \$300 문창선 / \$400 장영준&정아련 / \$500 이명운 / \$1,200 김백합자

**교회: \$3,850.00** \$100 자유교회, 퓨얼업한인장로교회, 타코마삼일교회, 웨더럴웨이벤앨침례교회, 밴쿠버사랑장로교회, 벨뷰사랑의교회 / \$200 시애틀한인장로교회 / \$300 브레머튼장로교회 / \$400 시온장로교회 / \$450 시애틀우리교회 / \$500 시애틀큰사랑교회 / \$600 평강장로교회 / \$800 시애틀행복한교회

**사업및단체: \$100.00** Fair Ridge Law Firm

**지출부: \$8,934.60**

선교비 \$2,770.97 / 사무관리비 \$536.25 / 미디어 선교비 \$969.74 / 사랑의교실 \$225 / 미주분담금 \$752.70 / Auto Expenses \$586.17 / 교육, 수련회 \$1,000 / 세금 \$894 / USPS Bulk Mail \$240 / 보험 \$79.28 / 대외선교비 \$500 / 심방비 \$80.49 / 은퇴 플랜 \$300

**전월이월금: \$42,992.98 | 차월이월금: \$42,223.38**

## 밴쿠버

**수입부: \$12,935.00**

**개인: \$69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 \$50 하준석, 오숙영, 이화, 김형윤, 이은희, 이혜영, 이윤도, 오정석 / \$100 정준영, 황신혜

**교회 및 단체: \$3,100.00** \$100 헤브론교회(주향기목장) / \$200 Oronia Ltd. / \$300 삼성교회 / \$1,000 밴쿠버중앙교회 / \$1,500 주님의제자교회

**지정: \$9,145.00** <The Bridge \$650: \$50 박승재(1월) / \$100 김은배(1월) / \$500 정기라> <지정 \$1,000: 박주천> <성탄나눔 \$6,700: \$800 갈릴리교회 / \$900 주님의제자교회 / \$5,000 Natural Life Inc. CANADA> <1월헌금 \$295: \$40 김민재(우정희) / \$100 김재원(김현주) / \$155 강재언> <Coram Deo \$500(1월)>

**지출부: \$9,870.90**

**사례비: \$1,621.37** 사역자사례(2인)

**대내선교비: \$2,167.74** 활동비 \$49.98 / 밀알&세계 \$2,117.76 CAD(인쇄비, 발송비)

**대외선교비: \$2,000.00** 본부분담금(2020년분)

**교실 및 모임운영: \$61.60** 토요사랑의교실 통신비

**사무관리비: \$102.03** 일반 통신비 \$67.20 / 우편료 \$1.37 / 소모품 \$8.46(달러라마) / 머니오더비 \$10 / 은행피 \$15

**세금: \$176.12** (1월)

**교통비: \$3,242.04** 운행비 \$312.50 / 뱅할부금 \$429.54(1월) / 보험료 \$2,500 (1년)

**지정: \$500.00** 코람데오 (1월)

**전월이월금: \$22,750.75 | 차월이월금: \$25,814.85**

## 텍사스

**수입부: \$4,475.35**

**개인: \$3,249.35** \$10 권영희 / \$20 Heather Cho / \$25 방진원 / \$30,한성원, 김태남 / \$50전후상, 신재원, 정선훈, 김희경, 임지영 / \$80 Ho Y Jeong / \$100윤성은, Ashley Moon / \$188 조광숙 / \$200 민한기 / \$300박근석 / \$400 채경수&임현정 / \$516.35 김이레(3달분) / \$1,000 이승복

**단체 및 교회: \$1,226.00** \$50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440제자침례교회(3달분) / \$320 Kim & K / \$200나눔교회 / \$100 Benevity Fund / \$116 Hope Tree Family Counseling

**지출부: \$2,144.75**

**선교비: \$1,461.75** 사례비 \$461.75 / 지정선교비 \$1,000

**사무비: \$683** 우표구입 \$211.80 / IRS Tax payment \$106.34 / 쿼북 \$26.65 / Fax \$9.95 / 밀알&세계 \$252.50 / 은행카드 fee \$58.10 / adobe \$14.06 / donorbox donation \$3.60

**전월이월금: \$1,393.96 | 차월이월금: \$3,724.56**





#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굴,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 밀알선교단 후원을 위한 온라인 모금 결제 시스템 안내

저희 밀알선교단에서는 후원자분들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밀알을 후원하시도록 하기 위해 '남가주밀알 홈페이지(<http://milalmission.com>)'에 Paypal 계좌와 크레딧카드 결제를 이용한 후원 모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전체 미주밀알 후원을 위해 남가주밀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후원 모금 시스템으로, 남가주밀알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결재된 후원금은 그 지역에 위치한 밀알선교단을 후원하게 됩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 실행단원( ) 후원단원( ) 월 \$5( ) \$10( ) \$20( ) \$30( ) \$50( ) \$100( ) 그외 \$( )

서명: \_\_\_\_\_ 날짜: \_\_\_\_\_

##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 www.milalmission.com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smilal@milalmission.com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지혜선교교회	5851 Newman St., Cypress, CA 90630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토렌스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온라인 모임:		화요일 & 목요일 오후 7:30 (ZOOM ID: 493 118 6375)		
온라인 사랑의교실:		LA 토요일 오전 10:00~11:00 / ELA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12:00 / TOR 토요일 오전 10:00 ~ 11:30		
		OC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12:00 / IRV 수요일 오후 5:30 ~ 6:00,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30 / ADULT TBA		
		온라인 사랑의교실: Adult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12:00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밀알 사무실로 문의 바람)		

###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 www.milalca.com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아동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4:00	산호세소망교회 /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청년사랑의교실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온라인 화요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ZOOM ID: 408 605 2134)		
온라인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ZOOM ID: 422 748 7456)		

###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 www.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wheat@yahoo.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타코마	매주 토요일 오전 11:30 ~ 오후 4: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웨더렐웨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웨더렐웨이중앙장로교회	37505 28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 www.vancouvermilal.com | Facebook/Vanmilal2001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Fax: 604-882-3214(겸용)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목요모임 Joyful Meeting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밴쿠버한인연합교회	3821 Lister Street, Burnaby
		찬양과 예배, 음악, 미술, 운동, 밀알중보기도모임		
사랑의교실	금요모임 Dream Together	매주 금요일 오전 10:30~오후 2:30	밴쿠버밀알꿈터	14625 108 Ave, Surrey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모임(social skill & relationship, Independent living skill)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30~오후 4:3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 Milal Mission in Texas 텍사스밀알선교단 | www.txmilal.org | www.facebook.com/texasmilal

1313 Valwood Pkwy #20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Cell: 682-561-9826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10:00 ~ 3:00	밀알선교센터	1313 Valwood Pkwy #200, Carrollton, Tx75006
중국인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12:30	Dallas Chinese Fellowship Church	2640 Glencliff Drive, Plano, TX 75075

##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샬롯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